

세계농업유산 담양 대나무밭 해외 홍보

농산물·먹거리·관광지 등도 소개 히스토리 채널 동남아 19개국 방영

‘천년’ 담양을 대표하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해외에 소개된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이자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밭과 다채로운 관광지는 물론 먹거리를 소개하는 방송이 해외에 홍보된다.

담양군은 농업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제작한 아시아 19개국에 송출되는 한국 히스토리 채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트래블 다이어리’ 시리즈에 담양의 대나무밭과 관광지가 소개된다고 밝혔다.

농정원은 우리의 농업문화를 해외에 소개해 한국의 전통농업기술의 우수성을 물론,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교육 및 관광지 등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동남아 등지에 홍보해 오고 있다.

방송에는 가수 권은비가 출연해 담양을 여행하며 세계중요농업유산 대나무밭인 죽녹원과 삼다리 마을을 방문하고, 농산물, 먹거리 등을 직접 체험하는 영상을 담았다.

담양대나무밭 전역은 대나무 품목으로는 세계 최초로 2020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세계중요농업유산 제 5호로 등재됐다.



담양을 삼다리 내다마을 농업유산 핵심지역 전경.

〈담양군 제공〉

방송은 히스토리 채널을 통해 한국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담양을 포함

한 일본과 동남아 19개 국가를 소개한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올해를 빛낸 장성군 정책, 군민이 뽑는다

25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

장성군이 올해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을 대상으로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best) 10’을 선정한다.

앞서 군은 부서별 추천안 가운데 군정발전 기여도, 군민 체감도, 부서장 설문 결과 등을 토대로 15건의 후보군을 추렸다.

▲읍면 생활민원예산 3배 이상 증액 ▲전군민 긴급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장성 무궁화공원 무궁화 명소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성공 개최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농촌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 실시 ▲상무평화공원 수경

시설(음약분수) 조성 ▲인공지능(AI, 에이아이) 말동무 인형 지원사업 ▲청소년 자유공간 ‘아띠’ 개소 ▲장성중학교 앞 방음벽 벽화 정비 사업 등이 우수정책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군민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장성군 홈페이지와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오프라인 투표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 된다. 장성군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다득표 순으로 ‘2022년 군정 우수정책 베스트 10’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가 군민행복시대를 9여는 민선8기 장성군 정책 공유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복숭아 가공기술 표준화 경쟁력 강화

표준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화순군이 복숭아 가공기술 표준화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화순군은 지난 14일 화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화순 복숭아 가공기술 표준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순 복숭아 가공기술 표준화’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 창업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 가공담당자, 화순복숭아연합회농조합법인 회장, 이사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가졌다.

중간보고회는 ▲화순 복숭아가공직성 검토와

제품 컨셉 ▲공정매뉴얼 ▲가공기자재 등에 대한 발표와 화순복숭아 반가공제품 2종에 대한 시식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연말까지 품목제조보고와 특허 출원을 마치고 가공업체 기술이전과 복숭아 반가공제품 제조 매뉴얼 제작에 활용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표준화 연구개발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가공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지역 농업인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가공제품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개관...강진군 새 랜드마크 기대

군수 등 100여명 참석 개막식

4D 상영관 등 체험콘텐츠 마련

강진군이 지난 17일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열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를 기념관 개관을 축하했다.

개막식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위동섭 강진경찰서장, 최광희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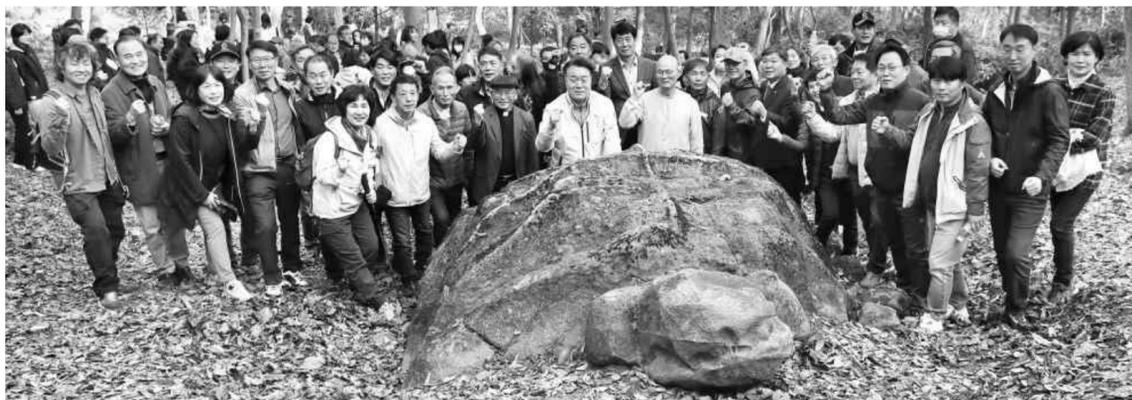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상설전시관과 전라병영성 출토 유물을 관람하고, 병영성 디오라마 내부 게임 콘텐츠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특히 체험코너로 마련된 공성전 게임은 병영성을 공격하는 왜군을 2인이 협동으로 막아내는 것으로 병영성의 본래 기능인 왜군에 대항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콘텐츠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4D 영상관에서는 하멜이 직접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 장면을 실감나는 4D 영상으로 제작해 마치 직접 배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콘텐츠로 많은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라병영성 일대는 앞으로 하멜기념관과 관광 그리고 네덜란드 맥주체험관과 네덜란드 커피 등 수많은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강진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비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지난 17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제86호로 지정된 개천산 거북바위에서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개천산 탐방로’ 왕복 3.8km 구간 개통

화순군이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83호로 지정된 ‘개천산 비자림 탐방로’를 개통했다.

화순군은 지난 17일 화순군 향토문화유산 86호로 지정된 개천산 거북바위에서 춘양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천산 비자림 탐방로 개통

식을 열고 탐방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개천산 비자림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비자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산 정상상을 향해 오르고 있는 형상을 한 거북바위의 전설을 품고 있는 화순의 숨은 명소다.

군은 비자림 관광 자원화와 군민 힐링 장소로 활용하고자 왕복 3.8km 구간을 탐방로로 조성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오늘 탐방로가 개통된 개천산 비자림과 거북바위는 화순의 숨은 명소다”며 “화순군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개발해 관광자원화하고 군민 힐링 장소로 거듭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 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 ‘한마음 대회’

광주지검 장흥지청 산하 청소년범죄예방 장흥지역협의회(회장 사선환)가 ‘27회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장흥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는 이번 한마음대회에서 지난 6월 장흥-강진군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백일장 대회 수상자인 장흥고 3학년 김서진(대상) 학생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금상, 은상, 동상 입상자 36명에게 총 140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광주지검 장흥지청 산하 (재)탐진장학회도 올해까지 관할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4000여만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경찰, 노인복지관 어르신 사고 예방 교육

교통·보이스피싱 등 예방법 알려

담양경찰(서장 국승인)이는 최근 담양군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보이스피싱, 노인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지역 내 교통사고 사례 설명 및 실제 사고영상 시청을 통해 무단횡단의 위험성 등을 알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했다.

최근 어르신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의 실제 사례와 사례별로 알맞은 피싱 범죄의 예방법을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했다.

또 최근 노인성폭력 급증에 따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성폭력 사례·유형 및 발생할 때 대처요령 등을 교육해 어르신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노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경로당 등을 찾아가 맞춤형 범죄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예산 1조원 시대 ...내년 1조34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민생경제 중점 ... 12.9% 늘어

나주시가 내년에 예산 1조원 시대를 연다.

나주시는 1조34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 21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146억원(12.9%)이 늘었고 일반회계는 9276억, 특별회계는 758억원으로 편성됐다.

나주시는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분야에 1505억원을 대거 편성했다.

한 나주시방상공민(지역화폐) 발행하는 등 74억 원을 책정했다.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예산은 기존 7억2000만원에서 5억원이 늘어난 12억2000만원을 책정했다.

경로당·마을회관 입식테이블과 의자보급(2억 5000만원), 어르신·장애인 가구 토방 ‘낮춤사업’(4억7000만원)은 민선 8기 새로운 맞춤형 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윤 시장은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조한 소득 기준,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는 출산장려금, 난임부부 시술비, 가사돌봄서비스 등 출산 전·후 돌봄 서비스에 14억원을 배정했다.

또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금 한도를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돌아오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예산으로 1044억원을 편성하고 민선 8기 시정 핵심인 ‘관광’ 분야에 314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